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11월 19일(일), 11:40	강당
성체분배자회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자배실

구역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11월 21일(화), 20:00	16구역	가정
11월 28일(화), 20:00	23구역	강당

알림

- 11월 22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다음 주(11월 29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강당에서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회의

- 사목협의회
 - 일시 : 11월 23일(목), 19시 40분
 - 장소 : 강당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대상 : 레지오 단원
- 일시 : 11월 26일(일), 14:00
- 장소 : 1부 > 성전
2부 > 식당

교육 / 강좌

- ‘2024년 부활’ 세레반 모집
 - 주일반 : 일요일 오전 9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11/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소	8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8일 ~ 11월 14일)

교무금	6,173,000원
주일헌금	4,688,000원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1,776,000원
이석구 5만원 심진보15만원 김준섭25천원 이지혜25천원 김명순20만원 박재형30만원 서미현10만원 심점순 5만원 정종국10만원	
감사헌금	김민수10만원 황정애10만원 박영숙 5만원 옥윤필10만원 박상덕20만원 황정후10만원 보스코 성가대 10만원 8구역 국수 잔치 나눔 10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1/19	이인옥	심재순	도현만	유숙중	장희석	안상록 정재경
11/26	권태희	김영균	김진수	유숙중	최상림	김덕영 정연희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19	장인홍	김인기	손상민	박형순	옥윤필
11/26	최승일	박용환	이계명	오광운	김인기

화답송



행복하야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모든 사람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잔미 받으소서”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희적

45. 일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특정 공간을 사유화하여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운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인위적 평안을 누리하고자 외부를 차단한 이른바 ‘생태’ 주거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도시의 이른바 ‘안전’ 지역에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녹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살고 있는, 제대로 눈에 띄이지 않는 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46. 세계적 변화의 사회적 요인들 가운데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 사회적 소외, 에너지와 그 밖의 공공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배와 소비, 사회적 붕괴, 폭력 증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 폭력의 증가, 마약 매매, 젊은이들의 마약 사용 증가, 정체성 상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두 세기의 성장이 언제나 통합적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징표 가운데 일부는 현실적인 사회적 쇠퇴, 곧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유대가 소리 없이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상입니다.

47. 더 나아가 매체와 디지털 세계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넉넉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영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훌륭한 현인들의 말씀이 넘쳐 나는 정보의 소음과 혼란 속에 들리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우리의 가장 커다란 풍요를 위협하지 않는, 인류의 새로운 문화적 진보의 원천으로 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성찰, 대화, 사람들과 편견 없는 만남의 결실인 참된 지혜는 단순히 자료 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의 축적은 결국 과부하와 혼란을 일으켜 일종의 정신적 오염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현실에서 맺는 관계는 그에 수반되는 온갖 도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끊어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과 맺는 관계보다는 기계와 그 화면을 통해서 맺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꾸며 낸 감정들이 흔히 생겨납니다. 오늘날 매체는 우리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며 지식과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매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두려움, 기쁨, 복잡한 개인적 체험을 직접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매체가 흥미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반면에, 인간관계에 매우 우울한 불만을 야기하거나 외로움이라는 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